

광양 동호안 붕괴, 영산강환경청 뭘 했나

침출수 유출·제방붕괴 위험 수차례 경고도 묵살 한노위 국감서 관리·감독 허술, 사후 대처 질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 국정감사에서 광양 동호안 붕괴사고를 놓고 감독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기업 간 책임공방을 벌이는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를 상대로 위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감독기관 뒤흔었다=한노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동호안 붕괴사고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사후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근본적으로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며 “침출수 유출, 제방 붕괴 위험성에 대해 환경단체 등에서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얼 했나”라며 근본원인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물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기업이 앞뒤를 보지 않고 매립지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

지만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기능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떠넘기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책임소재를 떠넘기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도 문제=위원들은 감독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 뿐만 아니라 사고 관계기업인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책임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 등 해당 기업이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광양제철소, 인선이엔티 관계자들은 “(붕괴의)주된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는 식의 무성회한 답변을 내놔 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노위 소속 위원들은 국감에 앞서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 환경단체와 관계기

업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은 뒤, “재상수준”이라고 사고를 규정하며 응급복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감장에선 동호안 붕괴사고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국감원에 “일일상황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기도 했다.

◇광양 동호안 붕괴사고=지난 8월 23일 인선이엔티에서 관리하는 광양시 금호동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4단계 부지 인공 도포가 붕괴돼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고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9일 오전 광주 첨단지구내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질문에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지난해 공공기관 부패 공직자 대폭 증가”

김동철 의원

공공기관의 부패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동철(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공직자 835명 가운데 공기업, 정부출연·출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는 280명으로 2007년 137명보다 143명(104%)이나 늘었다. 공직유관단체 부패공직자는 2005년 238명에서 2006년 201명으



로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부패공직자는 2007년 334명에서 287명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는 부패공직자가 201명에서 188명으로,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89명에서 8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2007년 25명에서 지난해 93명으로 급증했다.

“토지주택공사 임원 통합후 영남 편중 더 심화”

이용섭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토부)가 통합 출범하면서 영남 편중 및 호남 소외 인사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읍)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기 전에는 호남 출신 임원 및 비상임 인사가 전체의 21%(6명)를 차지했지만 통합 후에는 1명에 불과한 반면, 영남 출신은 45%(13명)에서 53%(8명)로 오히려 비중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원의 경우 통합 전



에는 호남 출신 임원이 23%(3명)를 차지했지만, 통합 후에는 한 명도 없는 반면 영남 출신 임원은 38%(5명)에서 43%(3명)로 됐으며, 심지어 사외이사까지도 호남 출신은 19%(3명)→13%(1명)로 줄어 들었고, 충청권·강원권·제주권 출신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영남 출신만 50%(8명)→63%(5명)로 분포가 확산했다.

“생체협 본회 회장단 대부분 서울·경남 출신”

서갑원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19일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체협 본회 회장단은 국회의원 출신 이강주 회장을 비롯해 모두 47명으로, 이 중 6명은 한나라당, 1명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또 출신지를 살펴보면, 서울·경남 출신은 각각 11명과 7명이었지만, 광주와 제주 출신은 단



1명, 대전 출신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생활체육 정책이 특정 정당 이념에 휘둘리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 국감 현장

19일 실시된 광주지방국세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본부세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공세를 펴고,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광주지방국세청=지난 5월 국세청 내부 계시관에 한상을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징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일선 직원에 대해 파면과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국세청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고 최근 무혐의 처분에 따라 국세청 처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운태

김효석 의원 “전 국세청장 비판 김동일씨 파면 지나치다”

의원도 “소청심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구제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동료로서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당시 징계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마땅치 않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청심사위의 결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애초 예상했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설전은 벌어지지 않았

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지만 정작 국감장에서는 말을 아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지겹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노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자료를 내고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위해 국감 기간 공동으로 이 문제를 검증하겠다”며 “생활용수·공업용수 공급 차질, 농업용 저수지 증고 불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4대강 사업 문제를 꺼내 들자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겹다. 그만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본부세관=올해 관세사범 적발 금액과 불법외환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올 8월 말 현재 광주세관의 밀수입과 관세포탈, 부정환금 등 관세사범 적발 금액이 6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실력있는 학원은 합격자로 말한다!
=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합격자 =
2009년 편입 김영출신 합격자
일반편입 현재까지 5,849명
수학전형 현재까지 1,450명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교재
동일한 강재 동일한 시스템

최저한 담임제도
1:1질의응답
일일출석점검

대학편입의 해법은 "김영" - www.kimyoung.co.kr

상위권대학 "실전문제풀이반" 대특강

D-80 합격완성

★ 기출문제는 물론, 예상문제를 통해 고난이도까지 정복한다. ★

무료특강 시사독해 기초문법 **개강 11월 2일** **2010 편입영어 실전대비강좌**

편입영어 이론+확정과정

대학편입을 가장 많이 시키는 곳!

김영

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실시간 문자상담 / 010-7766-1254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원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초·중학교 영어수업도
화상영어로 합니다!

영어회화

3%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스펙!!

전 화 영어회화

화상실판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 단지, 영어말하기를 위해 미국행 유학이 필요할까요?
- 입학사정관/취업담당자는 영어회화, 수학, 국어, 예체능을 모두 잘하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 영어회화는 입구정영어회화로 하면 유창해 집니다.

※ 월 수강료 : 6만원(주 3회)

외국인 1:1 입구정 Trend, 입구정 Pride
입구정영어회화 070-7433-0594
www.영어말하기.kr

한일지도판매(주)

한일지도 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
(광주시 북구 윤암동 477-2 윤암주유소 뒤)

관리지역 세분화 신판지도출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시·군·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수록

특보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이번에 새로 나온 신판 지도책은

- ◎ 최신 광주,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지번도책 ◎

<p>(주)한일지도판매(주) 상권 판권 1/6000</p> <p>한일지도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p>	<p>(주)무안·영암·신안) 합본 1/5000</p> <p>한일지도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p>	<p>최신 광주지번도 1/6000</p> <p>한일지도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p>
---	---	--

목포·무안·영암·신안군 4개 지역을 1권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 나와 판매 중입니다.

상담 문의 ☎ 062) 524-3059 ☎ 062) 529-1409

HOMECON 홈콘 不動産 리서치

TEL: 062-233-2222 H-P: 010-3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금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 이상 ~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 옆)